

# 재료의 미학을 넘은 조각의 본질

이태호 | 홍익대 겸임교수

**저** 녁 무렵, 정현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그는 마당에서 마스크를 쓴 채 그라인더를 들고 아스콘을 깎고 있었다. 그가 쭈그리고 앉은 근처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허연 먼지가 일었다. 석양이 비스듬히 비치는 마당에는 그가 이번 전시에 내놓을 작품들이 누어 있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그건 말하자면 '대지예술' 이었다. 흙 위에 바위들이 솟아오르고, 험산 준령도 보였다. 거기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계곡이 있었다. 정현의 그라인더에 의해 이리저리 잘려나가 아스콘의 속살이 드러났다. 그것은 아스팔트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길 위에 덮여 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과 차가 그 위로 지나다냈을 것이다. 용도 폐기되어 버려진 그것들에 정현은 주목했고, 선택했다.

가까이 가자 그 덩어리들이 사람 몸의 형태로 누워 있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고대의 거인이 미라로 눈앞에 나타난 것 같기도 했다. 대지 위에 누워 있는 주검. 그러자 햇빛과 바람과 함께 먼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풍장(風葬)이 떠올랐다.

작품은 네 덩어리로 구성됐다. 그 덩어리들이 사람의 몸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정현은 이 작품에서도 '인체' 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인체를 버린 적이 없다. 두부, 흉부, 골반 그리고 다리로 구성된 그 인체는 사실 추상으로 보면 추상이다. 각 덩어리는 거의 추상표현주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것은 규모와 배열에 의해, 혹은 그 배치의 반복에 의해 인체라 가늠된 것이다. 그의 형상은 이렇게 추상과의 경계에 있다.

그의 작품이 추상의 경계에 이르는 시점은 두 번째 개인전부터다. 1992년 첫 개인전 이후 5년 만에 가진 두 번째 개인전에서 그는 소조이지만 손에 의한 묘사가 없는 덩어리(mass)로서의 조각작품을 선보였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강하게 부딪혔거나 매를 맞은, 혹은 빠른 속도로 배어져 나가고 남은 덩어리들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얼굴이나 가슴 등 인체의 한 부위가 독특한 비례로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흙을 두드리고 배어 내다 우연히 남은 것처럼 보인다.

정현은 이후 이러한 '우연한 결과물' 같은 작업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거기에 거의 무목적적인 행위를 한다. 흙으로 무엇을 재현하거나 인체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 어떤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손을 뗀다. 그러면 거기에 어렴풋이, 혹은 상징적으로 인체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남는다.

네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는 철로의 침묵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침묵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부지런히 모은다. 그의 작업실에는 어느덧 침묵이 제법 쌓이고, 그는 오랜 시간을 버텨 온 침묵의 세월과 콜타르 냄새에 익숙해진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음각으로 깎는다. 침묵의 속살

# CHUNG HYUN



정현의 작품

조각가 정현은 오랫동안 인체의 형식에 가리워진 생명의 이미지를 압축된 조각의 에너지로 표현해 온 작가다. 기차의 육중한 하중을 견뎌내며 비바람과 먼지, 기름때를 받아들인 침묵을 재료로 인체를 형상화 한 작업은 이런 작가의 내면을 표출한다. 그는 최근에 열린 개인전(6.4~7.2 김종영미술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일명 아스콘)라는 낯선 재료로 인체와 자연의 형태를 동시에 지닌 '생명의 형태'를 제시했다. 인고의 세월이 담긴 재료와 온몸으로 맞서온 작가의 길을 따라가 본다.



정현은 1960년 인천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했다. 1980년 문화공예위원회 청년작가상을 수상하며 조각계에 입문했다. 1985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1990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1995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1998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01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04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07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10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13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16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19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2022년 조각공예회 창립총회 대표로 참가했다.

은 마치 상처처럼 드러난다. 그 상처의 형상은 또다시 인체의 형태를 띤다. 때로는 음울하게, 그것들이 수직으로 선다. 이즈음 그는 콜타르를 사용해 독특한 드로잉 했다. 드로잉의 소재도 사람의 얼굴과 몸이다.

다섯 번째 개인전(2001)은 금호미술관에서 열렸는데, 그 침목들은 여기서 양각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인체 형상이 된다.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그것들은 뻗뻗이 줄지어 있다. 앞의 음각작업이 표현에 소극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우울한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면, 양각작업은 훨씬 적극적으로 침목이란 물질을 드러내면서 경직된 인간상을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몸체의 표현으로, 여기서 정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저 무심한 듯 깎고 자른 나무들이 모여 몸체를 이루는데, 이로 인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이 작품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거대한 두상이었다. 침목을 자른 후 그것을 다시 조립하다 보면 1m가 훨씬 넘는 사람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 두상은 작가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발견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자연히 만들어진 커다란 바위를 보고 거기서 얼굴이나 동물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과 비슷한 일이다. 작가는 그만큼 재현을 위한 인위적인 묘사를 피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인체는 표현의 목적이 아니라 비의지적 행위의 결과로 자연스레 남은 그 무엇이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관객에게도 스스로

형상을 찾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정현은 6회 개인전에서 다시 아스콘이란 재료에 도전한다. 조각의 재료로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을 그는 선택한다. 침목도 결코 익숙하지 않은 재료였다. 이처럼 작가는 새로운 재료에 천착한다. 작가는 그 낯선 재료와 싸우면서 재료에 익숙해진다. 조소예술은 그 어느 장르보다 재료라는 물질에 구애를 받는다. 작품의 결과도 재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재료마다 밀도, 탄력, 질감, 무게, 온도, 색깔, 크기 등이 다르고, 조각가는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 새로운 재료에 도전하기

침목과 아스콘에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오랜 세월을 견디어온 것이라는 것, 둘째는 용도가 폐기되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앤티크를 수집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물에는 매력이 깃든다. 또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린 어떤 각별함을 느끼게 된다. 작가가 그 재료를 선택하는 데 바로 그러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두 사물에는 이른바 '인고의 세월'이라는 의인화한 비유도 게재한다.

그런데 작가는 왜 새로운 재료에 도전하는 것일까? 정현의 경우, 그는 이미 작품의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불변하는 주제

〈얼굴〉(왼쪽) 침목 160×110×92cm 2001과 드로잉, 금호미술관 개인전 전시광경



로서의 인체, 표현방법으로서의 무심한 듯함은 일관되고 있다. 무심한 듯함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스타일이다. 거기에서 그가 피할 수 있는 변화는 재료밖에 없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재료야말로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는 최상의 선택인 것이다.

그는 왜 인체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에게 인체는 재현의 대상물이라기보다, 이 세계를 보는 기준이자 창문이다. 인체가 지닌 비례와 균형, 이완과 긴장, 생성과 소멸의 질서는 이 세계의 질서를 압축하고 상징하고 반영한다고 그는 믿는 것 같다. 또한 그는 인체라는 창문을 통해 세계를 건너다 보고 파악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의 인체는 고전기나 중세의 인체가 아니라, 상징이나 개념을 지닌 대상이다. 그의 인체는 때로 마티스의 심미적 오브제이기도 하지만, 자코메티나 자드킨이 표현한 실존과 표현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정현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까지 미술대학을 다녔다. 한국 모더니즘의 최성기에 학교를 다닌 셈이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한국의 전반적 미학이 모더니즘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그의 작품도 모더니즘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1970년대에 최고이자 최대의 번성기를 맞이하나, 미국과 유럽은 이때부터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고개를 들고 새로운 미술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1971년 미술사가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왜 지금까지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라는 논문이 출간되면서 미술에 있어 본격적인 페미니즘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모더니즘이 그토록 경멸한 서사(narrative)와 신화를 전면으로 내세운 신표현주의가 활기를 띠며 미술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모더니즘의 주체인 '백인 남성'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외됐던 '타자(Other)'들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1980년대의 '다원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전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로서도 새삼 각성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인이 아닌 우리가 그 동안 교과서로 공부한 고틀리의 《서양미술사》나 쟈슨의 《세계미술사》에서 여성미술가와 유럽 백인 이외의 미술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한 일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그 편협성과 배타성, 극도의 형식주의로 인해 비판받으며 쇠퇴하던 모더니즘이 한국에서는 극성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 미술의 아이러니이지만, 아무튼 정현을 비롯한 그 세대는 이 시대에 모더니즘의 소나기를 흠뻑 맞으며 작가로 성장해야 했다. 한편 서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일면이 한국에서는 민중미술이란 이름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민중미술은 초기에는 모더니즘의 형식주의, 즉 사회와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미술

〈무제〉 침묵 187×350×20cm 2001



가끼리 주고받는 미술을 위한 미술의 고립주의와 서구 일변도의 미학적 기준을 비판하며 나섰다. 그러나 점차 그 중심이 정치와 사회적 투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와 방법을 지루하게 되풀이하는 형국이 되고 있었다.

정현은 모더니즘의 전성기이자 민중미술의 태동기에 대학을 다닌다 (1982년 졸업). 그에겐 대학 재학 시절 그 두 방향 사이에서 고뇌한 흔적이 있다. 그는 재학중 탈춤반 (당시 탈춤반의 회원들은 의식화된 학생들로 유명했고, 반독재투쟁 운동의 중요한 행동대이자 반서구/민족민중문화 전파의 전위부대라 할 수 있었다)에서 한때 중요한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재학중에 만든 남자 입상들은 당시 그의 의식과 관심을 잘 보여준다. 당시 학생들은 여성 누드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외적으로 남성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 남성상들은 건장한 신체로 바지 밑단을 걷은 노동자이거나 농민이었고, 특이한 것은 손이나 다른 신체의 근육이 긴장된 모습으로 표현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그의 재학 시절 작품은 그가 당시 조소과의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징후일 뿐 아니라, 그가 당시의 주류 미술경향인 모더니즘 밖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대학원 진학과 프랑스 유학 후, 그는 인체를 다루되 그가 생각하는 '인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인간'이 아니라

'인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조건이나 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체의 본질'과 '조각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가 모더니즘에 경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티스나 몬드리안 같은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명확히 보여준 바 있지만, 모더니즘의 100년 역사는 본질을 향한 '삭제의 역사' (Arthur Danto)를 계속해 왔다.

해럴드 로젠버그의 말처럼 '사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더니즘은 극단적으로 본질로서의 물질만 남아야 하는 미니멀리즘으로 귀착한다. 그래서 정현의 인체도 물질화하는 경향이 있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정현이 어떠한 이유로 모더니즘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그가 1980년대 당시의 민중미술에 대해 '뻘한 내용의 지루한 되풀이'에 염증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 조각가로 살아간다는 것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는 미술이 일상과 역사와 사회의 변동으로부터 외따로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담을 둘러치고 그 안에서 미술을 위한 미술, 앞선 미술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새로운 미술을 생산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아방가르드 정신도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의 반항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현은 모더니스트로서 자신이 선택한 미학적 기준 안에서 새로운 실험을 한다. 앞서 말했듯 '인체'라든지 어떠한 표현방식으로 작업의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많은 모더니스트 조각가와 마찬가지로 정현은 새로운 재료에 도전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도전은 분명히 한국조각계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에 나는 주목한다.

정현은 옆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의 낙천성과 너그러움이 주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노랑진의 수산시장을 좋아하고, 연중 언제 무슨 생선이 맛있으며 값싸고 좋은지 잘 안다. 그는 그 지식을 주위사람들과 나누며, 수산시장 구석에서 막 잡은 '바닷것'들과 함께 소주 마시기를 사랑한다. 그가 수산시장에 나타나면 고무장갑을 낀 아줌마들이 그에게 웃으며 아는체 한다. 이것이 그가 누리는 '웰빙'이다.

나는 앞서 그의 작업이 '형상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생각해 보니 최근 그가 한 작업 중 소리를 만드는 조각품이 있음을 기억해 냈다. 길이가 다른 동파이프를 연이어 매달아 바람에 의해, 혹은 지나는 사람이 건드려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것을 헤이리에 야외작품으로 설치했고, 부산 비엔날레 바다미술제의 도심 공간에 설치할 계획이기도 하다. 인체를 다루지 않은 이러한 작업이 그에게 하나의 '일탈'인지, 아니면 그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작업인지 나로서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장소 특정적(site specific) 작품을 그가 시도하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

한국의 조각계에서 특정 인물들이 '조형물 특수'로 바쁠 때에도 그는 세 일즈맨처럼 여기저기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웃으며 자신을 '노가다 정씨'라고 소개한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조소예술가라고 믿으며,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며, 또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조소예술에 바치는 헌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감동적일 때가 있다. 그가 그 작업에 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봤자 별 보상도 없는 그 '예술'이라는 것에 말이다. ■

〈무제〉 침목 250×160(지름)cm 2002

오른쪽 페이지 ·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조각의 긍정〉 전시광경



